

스펀지 티타늄 국산화 길 열렸다!

재료연구원, 1톤 시제품 생산 성공 ... 수입 대체효과 2조원 예상

국내 연구팀이 스펀지 티타늄 1톤을 생산하는데 성공함에 따라 국산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재료연구소는 가볍고 내식성이 양한 산업에 널리 쓰이는 은백색의 금속인 티타늄을 한 번에 1톤 생산하는데 국내 최초로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기능재료연구본부 이동원 책임연구원은 경남나도 함안에 있는 옥산IMT와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해 최근 스펀지 티타늄 시제품 1톤을 만드는데 성공했다.

평균 순도가 99.75-99.85% 수준으로 당초 목표치인 99.65%를 초과해 일본산 최고등급 제품으로 손색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2011년 중으로 2톤짜리 시제품을 추가로 생산할 계획이다.

티타늄은 한 번에 최소 3톤 가량을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양산시기는 2014-15년경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양산 체제를 위한 공장 건설을 위해 대기업 2곳과 자금력이 있는 중소기업 1곳 등 모두 3곳과 접촉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티타늄 제조기술 개발로 2조원의 수입대체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티타늄은 항공기, 선박, 자동차, 건축, 레저 등 거의 전 산업분야에 걸쳐 부품소재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러시아와 일본, 미국 등지에서 독과점 형태로 생산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04/20>